



- ① 9월 하순에 종자를 파종
 - 벼 마지막 물떼기 후 토양수분이 충분할 때 바로 파종한다.
 - 분무기(미스트기)로 골고루 산파한다.



- ② 종자발아 및 정착
 - 벼 베기 전에 종자발아와 정착이 된다.
 - 파종 후 10~15일경에 벼를 빨리 수확하는 것이 좋다.



- ③ 논이 빠지지 않을 때 벼 수확
 - 수분이 많을 때는 수확을 피한다.
 - 콤바인에 의한 식물체 피해 최소화 한다.



- ④ 벼 수확 후 바로 벼짚 수거(집초)
 - 벼 수확과 벼짚수거가 늦으면 파종시기가 늦은 것과 같이 좋지 않음



- ⑤ 생벼짚 사일리지 조제(베일)
 - 벼짚은 신속하게 베일로 수거한다.
 - 어린 묘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한다.



- ⑥ 벼짚 수거 후 월동 전 생육
 - 벼짚 수거 후 밀거름을 시용한다.
 - 토양수분이 부족할 때 물대주기를 한다.

■ IRG 입모중 파종과 벧짚 수거 후 파종의 차이점

- 벧 입모중 파종은 중부지역에서 IRG를 재배하기 위해 9월 중순~하순에 벧가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파종하고, 10월에 벧 수확 후 밑거름을 주고 재배하는 방법이다.
- 벧짚 수거 후 파종은 남부지역에서 10월에 벧을 수확하고 IRG를 기계 파종하거나 흩어 뿌린 다음 밑거름을 주고 재배하는 방법이다.

〈 IRG 벧 입모중 파종과 벧짚 수거 후 파종의 차이점 〉

구분	벧 입모중 파종	벧짚 수거 후 파종
적용지역	중부지역	남부지역
파종 시기	9월 중·하순(벧 수확 전)	10월 하순(벧 수확 후)
파종 방법	미스트기 또는 무인헬기로 산파	로터리 작업 후 줄뿌림 파종 또는 산파 후 답압
주의사항	파종 시 논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고, 10월 중순까지 벧 수확을 마쳐야 됨	파종 시 복토를 깊이 하지 말고 파종 후 답압을 잘해야 함

■ IRG 입모중 파종의 장단점

- 중부지역에서는 IRG를 적기에 파종해서 재배할 수 있고, 벧 수확 전에 파종하기 때문에 일손이 바쁜 시기를 피할 수 있다.
-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넓은 면적을 파종할 수 있어서 IRG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경영체나 농가에 유리하다.
- 파종 시 논에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, 벧 수확 및 벧짚 수거가 늦어지면 어린싹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 겨울을 넘기면서 많이 죽게 되어 수확량이 줄어든다.

■ 벧짚 수거 후 파종의 장단점

- 벧을 수확하고 벧짚 수거 후 로터리 해서 기계 파종하거나 산파 후 진압을 하면 입모 상태가 고르고 생육이 좋아 월동률이 높아진다.
- 벧 수확 후 파종해도 적기에 파종이 가능한 남부지역이나, 조생종 벧을 심어 빨리 9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중부지역에서는 IRG 수확량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.
- 중부지역에서 중만생종 벧을 수확하고 IRG를 파종하면 파종 시기가 늦어 제대로 겨울을 넘길 수 없고, 벧 수확과 IRG 파종 시기가 겹쳐 많은 면적을 파종하기가 어렵다.